

2011. 7. 18 제267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7. 18 제267호

문화·디자인

1. 시유지에 새로운 클래식 극장 건설 (뉴욕)
2. '지하철 이용 시 체험한 친절'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시민 참여로 제작 (런던)

산업·경제

3. '기술전략 로드맵'에 근거해 방재·안전 분야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도쿄)
4.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여름철 청년 고용증대 프로그램 시행 (뉴욕)

건강·복지

5.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축가 프로그램' 실시 (뉴욕)

행정·재정

- (토막기사) '영어 간판' 의무화 추진 (뉴욕)
- (토막기사) '청소년 모니터'의 의견을 市 행정예 적극 반영 (일본 교토市)

방재·안전

6. '온라인 화재발생 지도'를 작성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런던)
(토막기사) 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재해복구에 활용할 '특정 긴급수송 도로' 지정 (도쿄)

도시환경

7. 자전거와 걷기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추진 (영국 피터버러市/컴브리아주)
8. '그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도시환경 현황 공개 (런던)
9. 시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가로수를 심는 캠페인 실시 (독일 함부르크市)

도시계획·주택

- (토막기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 (베를린)
-

문화 · 디자인

1. 시유지에 새로운 클래식 극장 건설 (뉴욕)

○ 뉴욕시는 새로운 클래식 극장 ‘Theatre for a New Audience’를 브루클린區에 있는 시유지(市有地)에 건설할 계획임. 이 극장은 브루클린區에 위치한 BAM(Brooklyn Academy of Music) 문화지구에 약 2500㎡의 규모로 만들어지며 건축가 Hugh Hardy의 디자인으로 2013년 완공될 예정임. 3층짜리 건물에 299석 규모로 지어지는 이 극장은 리허설 룸, 로비, 공공공간을 갖추게 되며 셰익스피어 작품을 비롯한 클래식 공연을 주로 올리게 됨.

- 市에 처음 세워진 클래식 극장은 지은 지 4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건설하게 됨. 市 문화국에서도 이번 공연장 건설이 市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극장 신설 외에도 市는 BAM 문화지구에 향후 4~5년간 1억 달러(약 1057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미 40여 개의 문화단체가 입주하고 있음.

- 市가 계획하는 사업과 기대하는 경제·문화적 효과를 살펴보면 ① 연간 2만 5000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고 문화예술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펼치며, ② 지역주민에게 공공문화공간을 제공하고, ③ 지역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④ 이번 극장 건설을 통해 20개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 정규직, 100개 이상의 계약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⑤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건설할 계획임. LEED 인증은 미국 그린빌딩

위원회가 만든, 자연친화적 빌딩·건축물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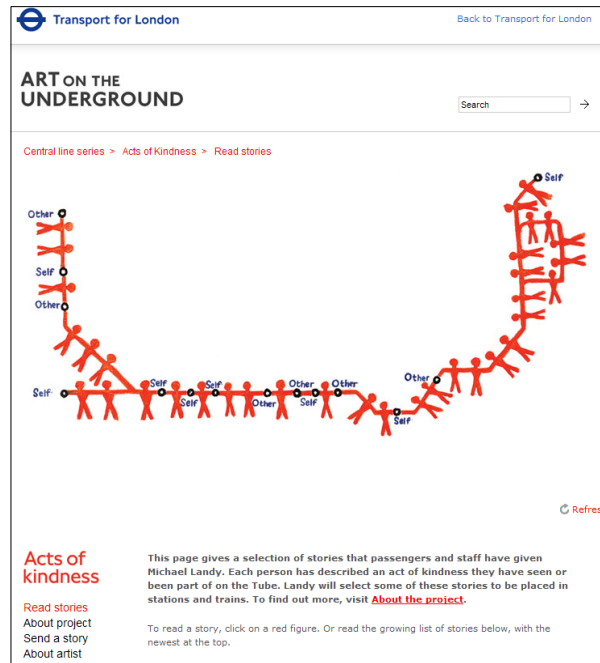
- 문화예술에 기반을 둔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이번 극장 건설로 문화 활동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미 50만 명 이상이 BAM 문화지구를 매년 방문하고 있다고 강조함.
 - 브루클린區는 BAM 문화지구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4년 BAM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바 있으며, 주거지구 및 상업지구를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 전체가 市の 투자금을 활용해 가로공간 조성 등의 신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임. 관련 사업은 주로 문화 관련 NGO나 사업장과 연계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번 극장 건설은 5개 자치구 중 노후도가 가장 높은 브루클린區에 지역주민, 예술가, 예술단체, 방문객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을 도시정부 차원에서 조성해 맨해튼 못지않은 문화시설을 갖추고 문화활동을 하도록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음.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1a%2Fpr225-11.html&cc=unused1978&rc=1194&ndi=1)

2. '지하철 이용 시 체험한 친절'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시민 참여로 제작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유명 예술가인 마이클 랜디를 초청해 지하철에서 경험한 '친절'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제작함. 특이한 점은 예술가가 단독으로 제작하지 않고 지하철 이용객과 지하철공사 직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는 방식으로 제작됨.
 - '친절의 실현'(Acts of Kindness)으로 명명된 이번 작품은 지하철을 예술문화작품으로 아름답게 꾸며온 'Arts on the Underground' 사업의 일환임.
 - 런던지하철 노선 중 센트럴라인에서 일상적으로 체험한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승객과 직원으로부터 수집함. 2011년 6월 18일부터 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체험담은 포스터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져 센트럴라인 내 역에 전시될 예정임. 7월 23일 4개 역에서 첫 전시가 시작되며 친절에 대한 미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임. 시는 전시하는 역을 차츰 늘려갈 계획임. 작품 전시는 영국 로터리재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2012년까지 계속됨.
 - 이번 작품을 만드는 마이클 랜디는 낯선 타인을 만나는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친절 행위로 때론 신뢰가 싹 트기도 하고 때론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접할 수 있다고 밝힘. 불친절이 오래 기억되기도 하지만, 친절을 중심에 놓고 보면 긍정적이고 훈훈한 시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런던지하철공사는 감상용 예술작품에서 벗어나 지하철을 통해 승객들

이 맺게 되는 긍정적인 관계를 센트럴라인 지하철에서의 체험담을 통해 소개해 사람 냄새 나는 지하철의 모습을 홍보한다는 전략임.



【'친절의 실현' 홈페이지】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archive/20281.aspx)

(art.tfl.gov.uk/actsofkindness)

산 업 · 경 제

3. '기술전략 로드맵'에 근거해 방재·안전 분야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도쿄)

○ 도쿄都는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 주제분야 및 목표를 정한 '기술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 로드맵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제품 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함.

- 2011년도 '기술전략 프로그램'의 주제는 지진대책 등을 고려해 '안전·안심' 분야로 결정됨. 都는 이 주제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임.

【안전·안심 분야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세부내용】

분야	주제분야	개요	기술 및 제품 개발 예시
안전· 안심	비(非)목조 건축물의 내진화	긴급수송도로변 비(非)목조 건축물의 내진화에 기여하는 내진 보수 공법 및 기술	· 철골 골조 및 기둥 보강 · 면진(免震)구조화, 제진장치 · 내진 슬릿(Slit)
	체감치안 개선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되고 손쉬운 유지보수, 절전 기능을 갖춘 방범카메라	· 유지관리비 절감, 내구성 향상 · 자연에너지 이용 · 보안기술 개발
	고령자의 안부확인	독거노인의 고립사(孤立死)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하기 편리한 안부확인 시스템	· 지역커뮤니티와 연계되고 재해 시에도 사용가능한 저렴한 시스템 · 생활리듬을 체크하고 생활리듬이 깨졌을 때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 · 긴급통보 시스템
	방사선·방사능 대책	방사선 및 방사능 측정과 방사선 방호	· 방사선 및 방사능 측정 기술 및 제품 · 방사선 방호 기술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7/20176700.htm)

4.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여름철 청년 고용증대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市 청소년 및 커뮤니티개발국에서는 월마트 재단으로부터 500만 달러(약 53억 원)를 지원받아 2011년도 여름철 단기 고용증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市는 매년 민간부문으로부터 여름철 단기 고용증대를 위한 지원을 받는데, 이번 월마트의 자금 지원으로 올 여름 약 3400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市는 이번 월마트의 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에게 학비나 도서구입비, 가계에 보탬이 되는 근로수당 정도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일원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함.

· 市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브루클린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힘.

- 市는 도시정부 차원에서 여름철 청소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2000만 달러(약 211억 원)를 투자할 예정임. 이 프로그램은 196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14~24세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 부문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임금을 지급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졸업률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진 바 있음. 市는 공공투자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한 이 프로그램에 월마트를 비롯한 민간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

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11b%2Fpr238
-11.html&cc=unused1978&rc=1194&ndi=1)
(http://cityroom.blogs.nytimes.com/2011/07/05/as-it-campaigns-to-build-
in-the-city-wal-mart-donates-4-million/?ref=nyregion)

건 강 · 복 지

5.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축가 프로그램’ 실시 (뉴욕)

- 뉴욕시는 ‘어린이 건축가(Junior Architects and Engineers)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함. 이번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생에게 단독주택에서부터 마천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물의 유형과 역사, 건설과정을 설명해줌.
 -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목적은 미래 뉴욕을 짊어질 어린이들이 도시의 외형과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또한 도시 발전에 있어 건축물의 의미와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음.
 - 시는 유명 건축가와 토목전문가를 초빙해 어린이에게 직접 특강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각 자치구의 주요 공립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건축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함. 시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여 학생들로부터 건축물 디자인 스케치를 받아 匾청사에 전시하고, 프로그램 수료 학생에게 ‘어린이 건축가’ 혹은 ‘어린이 토목가’ 수료증도 수여할 예정임.



【어린이 건축가 프로그램 시행 현장】

(www.nyc.gov/html/dob/html/news/pr_pe_ra_program_030111.shtml)

행 정 · 재 정

‘영어 간판’ 의무화 추진 (뉴욕)

- 뉴욕시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관내 모든 상업용 간판을 영어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사업체명을 영어로 표기하도록 한 뉴욕주 법령에 근거해 이를 위반한 업체를 지역경찰이 엄히 단속하도록 촉구하는 조례안도 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임.
- 실제로는 맨해튼의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 퀸즈 플러싱에 있는 아시아계 밀집지역이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계 이민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시와 시의회 내부에서도 영어 간판 의무화에 대한 이견이 많아 조례안 통과를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이 조례안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당국에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체의 고객 확대에 유리하며, 다문화 간 통합과 주민 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

반대하는 시민들은 문화적 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소수민족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간판 재정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함. 또한 간판을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표기한 업체들은 주로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 간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함.

(http://hosted.ap.org/dynamic/stories/U/US_STORE_SIGN_BATTLE?SITE=DC&SECTION=HOME&TEMPLATE=DEFAULT)

‘청소년 모니터’의 의견을 市 행정에 적극 반영 (일본 교토市)

- 일본 교토市는 청소년과 시민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및 시민 모니터 제도’를 시행함. 이 제도는 특히 청소년에게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함. 이를 위해 市는 청소년 모니터의 의견을 市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 市는 2011년 5월 중·고교생 14명, 대학·대학원생 42명, 일반시민 47명 등 총 103명의 모니터를 선발함. 이들을 대상으로 연 4회의 앙케트를 통해 문화예술, 도시계획, 쓰레기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市는 청소년 모니터만 따로 모아 워크숍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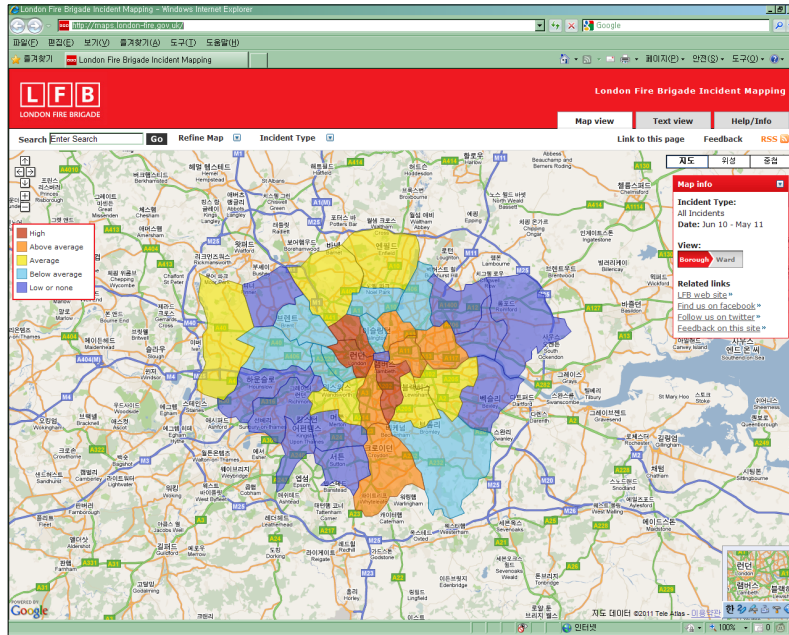
(www.city.kyoto.lg.jp/bunshi/page/0000103846.html)

방재 · 안전

6. '온라인 화재발생 지도'를 작성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런던)

- 런던소방청은 '온라인 화재발생 지도'를 작성해 2010년 한 해 동안 일어난 화재정보를 지도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함. 지역주민이 지역 사회의 화재발생 현황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 2011년 5월 24일 런던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처음 공개했으며, 전용 홈페이지(maps.london-fire.gov.uk)도 개설함. 2010년 한 해 동안 지역별로 발생한 화재와 교통사고 등 소방대원이 출동한 사건 수를 지도에 표시함. 영국에서 방재지도가 온라인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년 전 영국 내에서 최초로 지역별 범죄지도를 작성해 공개한 런던경찰청 사례를 참고해 만든 것임.
 - 지도에서 우편번호를 넣어 검색하면 런던 전체 평균과 비교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와 장난전화 통계결과가 나옴. 자치구 및 지역별로 사고 발생 현황을 검색할 수 있음. 런던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은 적색(사고 빈발 지역), 진황색(평균 이상 발생 지역)으로 구분해 표시하였고, 평균은 황색, 평균 이하는 청색으로 표시함. 런던소방청은 화재가 자주 발생한 지역의 주민과 기업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함.
 - 2010년 자치구별로 소방대원이 출동한 사건은 월 평균 3734건이었으며 이 중 417건이 심각한 화재사건임. 자치구별로는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도심지역인 웨스트민스터區가 9024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시티 지역이 1369건으로 최저 발생지역으로 나타남. 심각한 화재 빈발지역은 크로이던, 서더크, 웨스트민스터區이며, 방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크로이던, 힐링던, 브롬리로 나타남.



【구글과 연동되는 온라인 화재발생 지도】

(www.london-fire.gov.uk/news/LatestNewsReleases_PR1537.asp)

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재해복구에 활용할 ‘특정 긴급수송도로’ 지정 (도쿄)

– 도쿄都는 도쿄 직하지진 등 재해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도(首都)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활동과 재해복구의 대동맥으로 활용할 ‘특정 긴급수송도로’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2011년 4월부터 시행 중임.

- 6월 28일 이 조례에 근거해 긴급수송도로 중 주요 방재거점과 공항 및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 다른 縣에서 제공하는 긴급물자 수송 및 구호

활동을 위한 도로, 지역방재계획에 따라 설치된 구·시·정·촌(區市町村) 재해대책본부를 연결하는 도로를 ‘특정 긴급수송도로’로 지정함. 이번에 지정된 도로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이번 조례 규정이 적용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6/20I6s100.htm)

도 시 환 경

7. 자전거와 걸기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추진 (영국 피터버러市/컴브리아주)

- 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도시교통 체계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걸기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 추세에 있음. 그 중에서도 피터버러(Peterborough)市와 컴브리아(Cumbria)주가 대표적인 곳임. 피터버러市는 500만 파운드(약 85억 원)의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거처대 설치, 인도 확보에 나섬. 국립공원이 있는 컴브리아주는 700만 파운드(약 12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기존의 관광형태를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형태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함.

- 피터버러市는 피터버러가 영국 4대 녹색도시로 선정된 후 영국의 환경 수도로 만들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2004년부터 市 차원에서 녹색교통계획을 시행해온 점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함. 자전거 대여제도 도입, 자전거와 보행 인프라 구축방안을 추진한 결과 자동차 여정은 9% 감소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정은 각각 12%, 35% 증가함.

- 자전거와 보행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정류장 설치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과 카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 지원, 학교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자전거 재활용제도 시행 등에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16년까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의존율은 21% 늘리고 도심 교통 부하는 9% 줄인다는 정책목표를 세움.
- 컴브리아주는 레이크 디스트릭트 국립공원사무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레이크 디스트릭트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임. 호수를 둘러싼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장거리는 자동차, 단거리는 트레킹이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이번 사업은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이나 전동자전거, 전기차 등 저탄소 교통수단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뀌어나가는 데 중점을 둬.
 - 이번 사업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대안 교통시설 운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100여 개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됨. 또한 방문객이 이용하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해왔던 만성적인 교통정체 문제도 해소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방대한 크기의 공원면적을 감안해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연결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카드도 도입할 예정임. 트레킹과 전동 자전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버스와 보트, 기타 저탄소 교통수단을 다양하게 선택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이 교통카드는 교통수단을 옮겨 탈 때마다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이 차감되는 선불형 카드임.
 - 호수와 산지가 함께 있는 지형에서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트와 전동자전거 등 대안 교통체계를 다양하게 운영함. 국립공원에 포함된 5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경우 영국 내에서 가장 큰 지속가능한 교통망 허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만 1000톤 줄어 들고 관광수익은 연간 700만 파운드(약 12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www.bbc.co.uk/news/uk-england-cambridgeshire-14061225)

(www.bbc.co.uk/news/uk-england-cumbria-14041998)

(www.cumbria.gov.uk/news/2011/July/06_07_2011-141341.asp)

8. ‘그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도시환경 현황 공개 (런던)

○ 런던시는 도시환경 현황과 실태를 보여주는 ‘사이버 그린 데이터베이스’(Cyber Green Database)를 공개해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가 이용하도록 함. 그린 데이터베이스는 런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런던 데이터 스토어’와 연계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공공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임.

- 시는 영국 환경청, 영국 자연청, 영국 산림위원회와 협력해 다양한 환경정보를 2000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특히 쓰레기, 대기 질, 에너지, 야생 분야 등 환경 현안에 대한 28개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이에 힘입어 런던은 기후변화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28개 지표 중 21개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10% 감소됨.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5km의 강변 야생서식지가 개선되고 228ha의 해안과 침수지역이 녹지로 변화됨.

- 市는 도시환경에 있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가정에서의 물 사용량이 2000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음. 현재 1인당 매일 167리터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비되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음.
 - 쓰레기 매립량이 여전히 많아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 시민 1인당 연간 5.9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전체 평균 7.1톤에 비해 적음. 하지만 1인당 에너지사용량은 2000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슷한 수준임.

- 市는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그린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환경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힘.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green-database-shows-cyber-snapshot-london-s-environment)

(<http://data.london.gov.uk/datastore/package/state-environment-report-london-june-2011>)

9. 시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가로수를 심는 캠페인 실시 (독일 함부르크市)

- 독일 함부르크市는 2011년 ‘환경수도의 해’를 맞아 시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2011그루의 나무를 심는 캠페인을 시행함. 市는 ‘나의 나무, 나의 도시’라고 명명된 캠페인을 통해 가을에 2011그루의 나무를 가로에 심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시민들이 내는 기부금은 나무를 심는 데 쓰

이게 됨. 이 캠페인은 시민사회단체, 은행, 지역 신문사와 공동으로 진행함.

-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데 평균 1000유로(약 150만 원)의 비용이 듦. 나무 한 그루당 500유로(약 75만 원)의 기부금이 모아지면 市가 나머지 500유로를 충당해 시민이 정한 장소에 나무를 심음. 개인이 500유로를 전부 기부할 수도 있고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와 함께 단체를 만들어 기부할 수도 있음.
- 市는 매년 100만 유로(약 15억 원)를 들여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음. 병이 들거나,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자라거나, 쓰러져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무는 제거하고 빈자리로 남겨둠. 市는 모든 가로수를 토지 대장에 기록하고 있어 빈자리로 남겨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아래 그림 참조).



- 관심 있는 시민들은 캠페인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빈자리를 확인할 수 있음. 도시 전역이나 자신이 사는 거리, 학교나 유치원 앞, 자신에게 중요한 장

소 등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나무를 심을 장소를 찾아볼 수 있음. 나무를 심을 곳을 선정한 후 기부금을 내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음. 市는 캠페인이 끝난 후 기부자 명단을 공개함.

- 모든 가로수나 가로수를 심을 빈자리에는 4자리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 고유번호를 클릭하면 그 나무에 대한 기부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심을 나무는 전문가들이 그 장소에 적합한 수종(樹種)을 추천해 줌.

(www.meinbaum-meinestdt.de)

(<http://umwelthauptstadt.hamburg.de/contentblob/2954512/data/baum-flyer.pdf>)

도시계획 · 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 (베를린)

- 베를린市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집주인이 임대한 주택을 자신이 살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려고 할 경우 세입자에게 늦어도 주택변경 7년 전에 통지하는 제도를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1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함. 현행 법률에는 늦어도 3년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市가 주택 및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 빈집 비율, 세입자 변화, 세입자 거주기간, 주택 변경현황 및 변경계획, 주택매매 비율, 평균임대료를 기준으로 자치구의 주택동향을 분석한 결과 6개 자치구의 임차인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주민은 188만 명에 이릅니다. 주택시장 변화가 크지 않은 다른 자치구들은 현행법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됩니다.

- 이번 개정법률은 자가(自家) 소유보다 임차 선호도가 더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상승과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705.1220.350290.html)